

▶1면 '학점 인플레이'에서 이어짐

절대평가로 인한 학점 인플레이 현상은 2019년과 2020년의 A학점 성적 비율의 차이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우리학교는 2019년 1학기는 36.7%의 학생이, 2학기에는 36.5%의 학생이 A학점을 받았다. 그러나 절대평가가 시행된 2020년 1학기에는 60%의 학생이, 2학기에는 59.6%의 학생이 A학점을 받았다. 1년 사이 A학점 비율이 약 1.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우리학교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34조에 따르면, ▲수강인원 10명 미만 강좌 ▲교직과목 ▲군사학과 ▲실협·실습·설계·실기과목(이론 병행 강좌 제외) ▲전체 영어강좌 ▲교무처장 허가에 따라 별도 평가 기준이 지정된 강좌를 제외한 강의는 수강생의 40% 이내만 B+이상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는 학점표준화제도로 수강생의 60%는 B+ 아래의 학점만 받을 수 있다. 절대평가 이전에는 본 제도가 적용돼 각 강좌의 수강생들이 고른 분포로 학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절대평가로 학점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며 각 단과대와 과별 A학점 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작년 1학기 서울캠과 국제캠 퍼스(국제캠) 통틀어 A학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과는 무용학부, 일본어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로 각각 80.2%, 80.1%, 78.8%를 기록했다. 반면에 치의예과와 치의학과, 수학과는 각각 37.2%, 42.7%, 44.9%의 낮은 비율로 A학점을 받았다. 무용학부와 치의예과의 A학점 비율의 차이가 43%p에 이르는 것이다.

특히 작년 1학기 A학점 비율이 높았던 일본어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는 2019년 1학기에 비해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학기, 일본어학과는 39.2%, 환경조경디자인학과는

41.7%의 A학점 비율을 기록했다. 두 학과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되며 A학점 비율이 대략 40%p의 증가한 것이다.

또 한 단과대 내에서도 학과별로 A학점 비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학기 국제캠 외국어대학 중 A학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어학과(80.1%)와 가장 낮은 스페인어학과(54.3%)의 비율 차이는 25.8%p에 달했다.

각 단과대학과 과마다 기준이 없어 학점 비율이 상이한 것도 문제이지만 절대평가가 도입된 20학번·21학번과 달리 상대평가로 성적을 받았던 이전 학번에 대해 '역차별'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도 있다.

2020학년도 전기 졸업생인 김채은(러시아어학 2016) 씨는 "절대평가로 높은 학점을 받는 게 쉬워지면서 대부분을 상대평가로 학점을 받아온 입장에서 매우 우려했다"며 "사실상 코로나로 학점 인플레이를 경험한 학생들에 비해 핸디캡을 안고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셈이라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점 인플레이로 기업들이 학점을 평가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공부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학기 다전공 신청에서 반려된 19학번 A 씨는 "상대평가로 성적을 받았던 기간 때문에 20·21학번에게 성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이번 학기 다전공을 신청한 주변 동기들 다수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성적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바뀐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구체적인 성적 커트라인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며 "강좌마다 교수님들의 절대평가 성적 기준이 상이해 어떤 강좌를 수강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점수라

2019·2020 1학기 A학점 비율

단과대학	학과명	2020년	2019년
무용학부	무용학부	80.2	72.7
외국어대학	일본어학과	80.1	39.2
예술디자인대학	환경조경디자인학과	78.8	41.7
체육대학	체육학과	77.2	53.2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73.8	40.5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73	38.7
정경대학	사회학과	72.5	36.3
음악대학	기악과	70.8	58.8
⋮			
경영대학	경영학부	61.1	44.5
약학대학	약학과	61	33.6
의과대학	의학과	55.9	25.8
응용과학대학	우주과학과	55.4	37.6
한 의과대학	한 의학과	53.7	31.9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학과	54.8	32.8
전자정보대학	전자공학과	50.3	33.8
국제대학	국제학과	45.6	35.9
치과대학	치의학과	42.7	26.1

각 단과대학에서 A학점 비율이 높은 학과를 내림차순으로 정리.

도 학점이 천차만별"이라고 덧붙였다.

학점 인플레이로 인한 불만에 대해 서울캠 학사지원팀은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이 적어 성적 평가를 할 때 학생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해달라는 취지로 절대평가를 시행했다"며 "과목을 개설할 때 평가에 대한 비중, 점수에 따른 등급 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수님들에게 안내해 드린 상태"고 설명했다. 이어

"강좌별로 점수에 따른 학점 기준이 상이하지만, 사전에 공지된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들이 강좌를 선택한 것"이라며 "교수들에게 학점 기준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재차 설명했다. 끝으로 "다음 학기 대면 여부에 따라 기존대로 상대평가로 회귀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과정을 제외한 통계 수치로 작성되었습니다.)

▶1면 '양궁부 우승'에서 이어짐

임두나 선수는 60m 싱글라운드에서 347점을 쏘 창원대 강민서(344점) 선수를 누르고 우승했다. 정지서 선수 역시 50m 경기에서 347점으로 목원대 이나영(339점) 선수와 한국체육대 이다희(338점) 선수를 가볍게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두나 선수는 "욕심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시합에 임했더니 좋은 성과가 따라왔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결심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회에 참가했다는 임 선수는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지서 선수는 "열심히 훈련에 임한 것이 결과로 나오게 되어 너무 기쁘고 앞으로 남은 시합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금메달 획득 소감을 전했다. 정 선수는 "연습대로만 편하게 하자는 생각과 단순하게 활을 쏘자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다"며 "앞으로 2년 동안 남은 시합도 열심히 준비해서 점점 나아지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최희라 감독은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훈련을 많이 못 해 성적이 저조했고 선수들 스스로도 우승을 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과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쉬는 날 없이 훈련해 감각을 유지한 결과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나온 결과이기에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최 감독은 "국가대표 선발을 목표로 상위 기록을 쌓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10월에 열릴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다.

# 중앙박물관, '제1회 올해의 박물관·미술관 상' 수상

박소은 기자 unaos@khu.ac.kr

우리학교 중앙박물관이 한국박물관협회 주관 '제1회 올해의 박물관·미술관 상'의 출판물 부문 수상관으로 선정됐다.

'제1회 올해의 박물관·미술관 상'은 우리나라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와 발전에 공헌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우리학교 중앙박물관은 전국의 1000여 개의 박물관·미술관 중

에서 6개의 수상관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대학 박물관과 미술관 중에선 유일한 수상관이다.

중앙박물관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소장 고문서의 역사적, 심미적 가치를 소개하고자 2년간 려선합벽(건·곤)과 황각필한(건·곤) 일부를 탈초·번역한 결과물인 『려선합벽 : 옛사람의 글에서 삶을 엿보다』를 출판했다. 또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박물관 관람이 불

가능해지자 온라인 전시를 개최하며 박물관 운영에 힘썼다.

중앙박물관 김용은 학예연구실장은 "이번 수상이 우리 박물관의 자긍심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수집 및 소장하고 있는 사료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박물관의 존립 근거"라며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고사업 지원을 받아 전시회 사업 및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정

리해 출판한 것이 박물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한 것 같아 뜻깊다"고 덧붙였다.

중앙박물관은 올해 『황각필한』 출판을 진행 중이며 이후에는 조선시대 유명 문인의 서찰을 담은 『명묵첩(名墨帖)』의 전시와 출판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우리학교 중앙박물관이 지닌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문화 세계의 창조'라는 교시에 걸

맞게 기여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교내 건물 출입이 통제되며 박물관은 다양한 온라인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올 가을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도자기 전시를 열 것"이라며 "참여자 큐레이터가 되어 전시된 유물들을 체험한 후 이를 다시 재구성해보는 후속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